

『 세계물류 중심으로 나아가는 광양항 』

지리교육과 05학번 유다혜

☞ 답사포인트

- 광양항이 세계적 Hub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입지 요건을 살펴보자.
- 광양만 일대에 지정된 경제특구에 대하여 살펴보자.



《광양항 위성사진》

일반적으로 항구는 파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만입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배가 정박하기에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건설된다. 항구는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 장소로, 그 기능과 관리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출입과 관련한 선박과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해양수산부가 직접 건설·관리·운영하는 무역항, 국내의 화물을 담당하며 해양

수산부가 건설하여 시·도지사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연안항, 어업활동의 근거지 역할을 하는 어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역항과 연안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써 우리가 살펴볼 광양항은 무역항²⁰⁾에 속한다.

광양항의 항만시설은 광양만을 중심으로 여수지역과 광양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양만-여수지역에 위치한 부두는 여수 국가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비료, 정유, 석유화학 업체들을 보조하고 있다. 광양만-광양지역에 위치한 부두는 광양제철소를 지원하는 부두와 컨테이너 부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광양항은 여러 가지 경제 특별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특별구역에 초점을 맞추어 광양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20) 우리나라의 무역항은 총 27개항으로서 인천, 평택, 대산, 보령, 장항, 군산, 목포, 완도, 여수, 광양, 제주, 서귀포, 삼천포, 통영, 고현, 옥포, 장승포, 마산, 진해, 부산, 울산, 포항, 삼척, 동해, 묵호, 옥계, 속초항이다.

1. 광양항의 입지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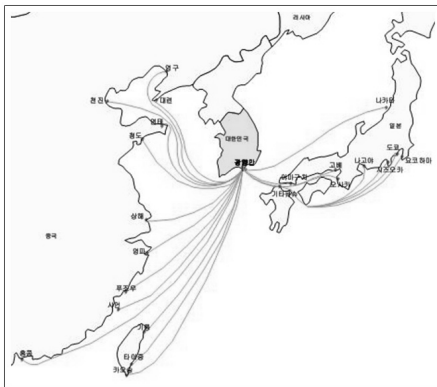
1) 자연적 조건

광양만의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의 장점을 살펴보면, 광양만은 한국 굴지의 큰 만으로서 여수·순천·광양 및 남해로 싸여 있어 남서부 일부를 제외하면 비교적 높은 산이 급경사의 암산으로 해안까지 연결되어 있다.

광양항은 대형 선박 입출항의 최우선 조건이라 할 수 있는 20m 이상의 천연수심을 확보하고 있어 최대 30만톤 이상의 대형 선박 입출항이 가능하고, 항만이 주위의 산과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파제 없이도 청정 수역을 유지함으로써 개발비용이 저렴하고 악천후에도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고속도로·철도 등 내륙 운송면에서 호남권 및 대전 이북권역의 화주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것이 부산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2) 지정학적 우위



《동북아 주요연결 항만》

국내적으로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접경 지역으로 전라남도의 여수, 순천, 광양 및 경상남도의 하동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최남단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와 태평양의 연결고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산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연결하는 축상에 위치해 있다면 광양만은 상해·싱가폴·홍콩 등 태평양 주요지역과의 연결 축상에 위치해 있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²¹⁾

광양항이 자리한 광양만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대규모 여천 석유화학단지, 울촌 산업단지가 산업벨트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남북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남북한 철도가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과 연계돼 러시아 및 중국은 물론 유럽까지 철도 운송이 가능한데다 반경 1000km 이내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40여개나 분포, 동북아시아 화물의 중계 및 환적화물거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특히 6.6km²에 이르는 광양항의 배후단지는 무역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관세

21) 광양항에서 연결되는 동북아시아 항만은 중국의 상해·청도·천진·대련·영파·연태·신강·푸조우·샤먼, 홍콩, 대만의 기륭·타이중·카오슝, 일본의 고베·요코하마·도쿄·시즈오카·나고야·오사카·니가타·키타큐슈·야마구치 등 23개 항에 이르고 있어 허브항만으로써의 연결성이 우수하다.

자유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하역, 운수, 환적 등 물류 유통에 관한 사업 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무역, 마케팅 등 관련지업 업체의 입주가 가속화 될 것이다.

2. 경제자유구역

1)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이란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각종 혜택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 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지칭한다.

FEZ는 외국인 친화적 생활여건, 지정학적 입지조건, 최적의 첨단 인프라 확충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경쟁 가능한 공항,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세계 우수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그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FEZ 내에서는 조세감면 자금 지원, One-stop행정서비스²²⁾ 제공, 외국교육기관/병원 설립/운영, 외국어 서비스 허용, 각종 규제완화 등의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주며 혜택을 부여한다.

2) 우리나라의 FEZ

1995년 이후 GNP가 정체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의 추락, 공동화현상²³⁾을 보였다. 반면 동북아 지역의 성장은 EU 및 NAFTA와 더불어 세계 경제의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중국 경제 및 동북아 경제권의 급속한 성장현상과 연결 지어 찾아 볼 때 우리나라도 동북아 물류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FEZ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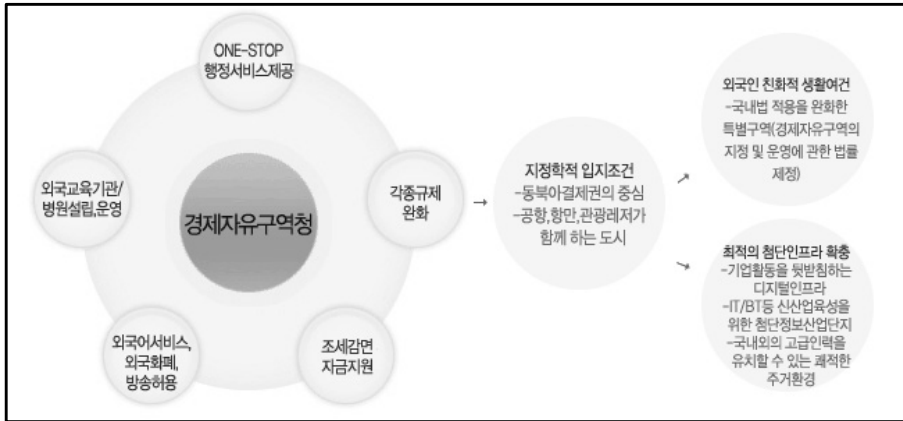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이 FEZ로 지정·운영 되고 있다. 인천에는 화물 처리 실적 세계 3위, 서비스 세계 3위인 인천공항이 입지하여 있으며, 부산, 광양은 세계 간선항로 위에 위치하여 물류허브로 입지가 유리하다. 또한 이들 지역은 첨단기술부터 중간 부품까지 다양한 산업구조를 띄고 있으며 중국보다는 숙련되고 일본보다는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다.

FEZ는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등의 효과가 크며, 관광객 창출과 GDP 증가, 실업률 감소에도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

22) 정보기술을 행정에 활용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맞추어 결재단계를 축소화하고 과정중심적인 업무연계를 통하여 One-Stop/non-stop/Any-Stop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One-Stop행정서비스의 이해)

23)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로 제조업이 이전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3) 광양 FEZ



《광양 경제자유구역 사업개요》

출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http://www.fez.go.kr/>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대의 지역으로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지구, 울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 5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철강 생산 능력 세계1위의 광양제철소와 여수석유화학단지, 울촌 산업단지가 산업벨트로 연결,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안정적 성장이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답사할 광양항은 광양지구의 핵심적인 항만교통의 중심지이다.

이러한 광양만권의 개발은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낙후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 되어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광양만권의 파급효과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FEZ건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건설수요에 의한 효과이고 두 번째는 FEZ 건설단계와 건설 후 유입된 외국자본으로 인한 산업시설 건설의 파급효과이며 마지막으로 장기 효과로써 FEZ에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지속적인 생산 활동이 일어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

	투자액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관광객창출	GDP	실업율감소
광양	66조	105조	44조	161만명	100만명	0.3%	0.085%

자료 : 전라남도 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과 외국인 투자 유치계획, 2004. 4. 24

4) 세계의 경제자유구역

(1) 홍콩

자유무역항으로서 세계 제1위의 컨테이너 취급량을 자랑하는 홍콩이 지닌 물류 거점 국가로서의 강점은 민영화된 항만으로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중국과 물의 환적항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홍콩정부는 중국과 2001년 11월 초 홍콩물류개발위원회를 결성하여, 주요 논의 사항은 중국 본토와 내륙 운송망 개발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국제 물류거점의 경쟁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홍콩의 세제는 단순하며 법인세율이 아시아 최저수준이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간섭이 별로 없고, 출자비용, 현지인 고용, 과실송금 및 재투자에 대한 규제도 없다.

(2) 중국 푸둥지구

중국내 물류량이 가장 많은 상해항은 컨테이너 부두가 5개 터미널 17선석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배후공항인 푸둥국제공항²⁴⁾은 세계8위의 규모를 자랑한다.

푸둥지구의 기업소득세, 법인세, 수출품 관세 등이 저렴하다. 또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사업의 검토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맺음말

동북아 경제권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아시아 각국의 물류량 유치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앞으로 5~10년 이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은 경쟁국의 항만인 싱가포르, 상해, 홍콩 등에 뒤쳐질 것이다. 실제로 상해 이북지역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직항로 개설로 인해 부산항과 광양항은 화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주요 비즈니스 중심 국가는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어 세계적인 물류실적을 다투는 항만, 공항을 그 엔진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경제 정책으로 인한 발전은 단순한 그 지역의 활성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을 가동하는 것으로 보아 좀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 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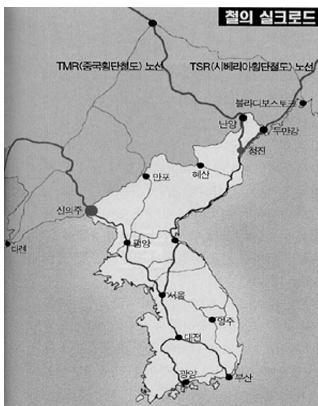
24) 2000년 2,089만명의 여객운송과 100만톤의 화물처리 실적을 갖고 있다.

광양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물류유통의 중심지에 있으며, 세계의 주요 항로 축상에 위치하여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항만, 도로, 공항, 철도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환경에 맞추어 제도적인 인프라가 철저히 마련이 된다면 앞으로 세계 물류중심에 진입하는데 성공 할 것이다.

☞ 생각해보기

부산과 광양은 모두 ‘철의’의 기차 및 종착지를 꿈꾼실크로드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두 곳 모두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과 광양은 유럽-싱가포르-홍콩-부산, 광양-일본-미국을 잇는 ‘해양실크로드’와 부산·광양-중국, 러시아-독일-네덜란드를 잇는 육상실크로드의 접점에 자리잡고 있다. 유럽의 허브항구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함께 기차 및 종착지구실을 할 수 있는 것. 선박을 이용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의 해상 운송거리는 1만9800km에 이르나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하면 9400km 넘게 단축된다.

부산항, 광양항은 전두환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87년부터 양항(兩港·두 개의 항구) 정책에 의해 동시에 투자돼왔다. 80년대 중반까지는 부산에 ‘선택과 집중’해 부산항을 동북아 중심 항구로 키우겠다는 게 한국의 항만 정책이었다. 국토균형발전론이 힘을 얻으면서 80년대 후반 부산항과 광양항을 함께 개발하는 ‘투포트 시스템’이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가던 광양은 김영삼 정부 시절 첫 번째 시련을 맞는다. 김 전 대통령이 부산신항 건설을 들고 나오면서 예산이 부산에 집중된 것. 이후 김대중 정부 때 다시 투포트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광양항은 정권에 따라 울고 웃었다



- 근접한 위치에 입지한 부산항과 광양항이 경쟁하고 싸우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상생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기위해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토론해보자.

《참고문헌》

- 김정민 / 2006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호남대 복지행정대학원
- 이정순 / 2006 / 우리나라 항만체계 발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 한국교원대 대학원

《참고사이트》

- 광양시청 <http://www.gwangyang.go.kr>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http://www.fez.go.kr>
- 광양항 <http://www.portgy.com>